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울 엄마 생각이 난다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울 엄마가 생각이 난다
 자장가 대신 젓가슴을 내주던
 울 엄마가 생각이 난다
 눈이 오면 눈맛을 세라 비가 오면
 비 젖을 세라 험한 세상 넘어질 세라
 사랑 땀에 울먹일 세라
 그리워진다 홍시가 열리면
 울 엄마가 그리워진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도 않겠다던
 울 엄마가 그리워진다



김민준 (81.02) 1Y울-10콜나



무한경쟁의 시대다. 학업, 연애, 직장, 사업 등 우리는 늘 누군가와 경쟁하고, 그 속에 라이벌은 존재한다. 필자도 과거 방송국에서 만난 라이벌이 있었다. 친한 동생이었던 그는 참 입담이 좋은 사람이었다. 더군다나 공채 개그맨 출신으로 참 다재다능했다. 한번은 방송국에서 라디오 디제이 콘테스트를 진행했다. 디제이가 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관문이었고, 그 친구 역시 참가했다.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뒤집고 결국 필자가 우승했는데, 그 후로 그 동생과 조금 서먹한 사이가 되었던 기억이 난다.

대중 가요계에서도 라이벌 구도는 비즈니스 기법으로 심심치 않게 활용되었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라이벌 구도는 흥행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다. 과거 대중 가요계 최고의 라이벌 구도를 꼽자면 단연코 남진과 나훈아다. 두 가수의 경쟁은 지금도 회자될 정도로 대단했고, 뜨거웠다. 당시 미국의 가왕이라 불렀던 엘비스 프레슬리를 연상시킨 남진의 등장은 많은 여성 팬의 마음을 녹였다. 1965년 데뷔한 남진은 출중한 외모와 남성미 넘치는 스타일의 음악으로 대중 가요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 넣었다. 이에 반해 다듬어지지 않은 독특한 매력으로 남진의 아성에 대적한 이가 있었으니 바로 나훈아다. 데뷔 초반, 사실 대적이라 하기엔 인지도의 차이가 있었지만, 나훈아의 스타성을 알아본 대중 가요계는 두 가수를 라이벌 구도로 만들었다.

출중한 외모와 남성미를 뽐냈던 남진, 특유의 구성진 목소리에 치아를 드러내며 여성미를 뽐냈던 나훈아. 서로 다른 매력으로 무장한 두 가수의 라이벌 구도는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만큼 치열했고, 대중을 열광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이러한 구도에 힘입어 남진과 나훈아는 당대 최고의 인기 가수가 되었고, 지금까지도 두 가수의 서사는 깊이 각인되어 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두 가수의 행보는 차이가 생겨났다. 나훈아는 신비주의 콘셉트와 장르를 넘나드는 음악 스타일로 일명 '테스형'이라 불리며 젊은 세대의 사랑까지도 받게 된 반면, 남진은 다양한 연령층의 팬 확보에는 실패했다. 평론가들은 나훈아의 꾸준함을 싱어송라이터 특성과 세대와 소통하는 유연한 음악성이라고 이야기한다. 실제로 나훈아는 오랜 시간 수많은 곡을 만들며 꾸준한 활동을 이어왔고, 신비주의 전략과 가창력,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며 음악으로 대중과 소통해왔다.

이번 호에서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 부모님을 생각하며 듣기 참 좋은 곡, 나훈아의 <홍시>를 소개한다. 이 곡은 당초 1992년 <석류가 웃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나훈아가 발표했는데 빛을 못 보다가 같은 해 김지애가 부르면서 관심을 얻었다. 그러다 2005년 나훈아가 이 노래를 다시 손을 봐서 <홍시>라는 제목으로 발표하며 히트치게 된 것이다.

<홍시>의 도입부를 장식하는 하모니카 소리는 어린 시절을 회상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 노래의 뒷부분 가사인 '생각만 해도 눈물이 핑 도는 울 엄마가 그리워진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찡하는 울 엄마가 그리워진다'를 듣고 있으면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애절한 가사와 나훈아 특유의 구성진 목소리가 마음을 절절하게 만든다. 아무리 무한경쟁의 시대라고 해도, 부모님만큼은 언제나 우리를 응원해주는 든든한 존재다. 부모님, 가족과 함께하며 행복한 5월을 즐겨보자. 필자도 부모님께 <홍시>를 들려 드리며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 드려야겠다.

WRITER



심재승 음악칼럼니스트
 교통방송 DJ

• 외부 필진의 기고문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